

<p>행 사 명</p>	<p>신년잔치: 신년이라 신이나네</p>
<p>일시 및 장소</p>	<p>20130114 / 어찌면사무소</p>
<p>평 가 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당수의 인원 참여 ② 활동 당원과 비활동 당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 ③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외된 인원 발생 ② 비당원의 소외 ③ 사후 정리 및 수습 미흡 ④ 일부 당원의 노동력에 의존 ⑤ 일부 당원의 사비 적자 ⑥ 사후 이미지 관리 실패, 관계악화 ⑦ 참여한 당원들의 활동당원化로의 연계 미흡 ⑧ 식재료 낭비, 불충분한 메뉴 고려, 음식부족
<p>비 고</p>	

<p>행 사 명</p>	<p>○○은 녹색 : 생물 종 다양성과 한반도</p>
<p>일시 및 장소</p>	<p>20130111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p>
<p>평 가 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담회 최다 인원 참여 ② 시간의 넉넉한 안배 ③ 강사의 충분한 강의준비와 강의능력 ④ 당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비당원 참여 ⑤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⑥ 강의 내용과 녹색당과의 연결성 ⑦ 사후 모임 평가가 바로 이루어짐 (카페에서 뒷풀이) ⑧ 영상촬영 이루어짐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사의 정치적 성향이 당과 불일치 ② 평일 오후 시간에 이루어짐 ③ 기대이하의 질의응답 ④ 인원 동원이 홍보가 개인의 능력에 의존
<p>비 고</p>	

<p>행 사 명</p>	<p>○○은 녹색 : 녹색가치에서 역사해석과 인식</p>
<p>일시 및 장소</p>	<p>20130116 / 군포 경실련</p>
<p>평 가 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사의 충분한 강의준비와 강의능력 ② 참신한 강의주제 및 강연내용 ③ 영상촬영 이루어짐 ④ 만족할만한 수준의 질의응답 ⑤ 장소를 무료로 대여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낮은 참석률 ② 평일 오후 시간에 이루어짐 ③ 홍보의 미흡 ④ 행사 이후 해당 지역 및 단체와의 연계 실패
<p>비 고</p>	

<p>행 사 명</p>	<p>○○은 녹색 : 에코 아나키즘 그리고 생활협동조합</p>
<p>일시 및 장소</p>	<p>20130125 / 부천YMCA</p>
<p>평 가 긍정적</p>	<p>① 장소의 적당성 ② 강사 섭외가 아닌 자체 강의준비 ③ 장소의 편의성</p>
<p>부정적</p>	<p>① 강사자질 부족 [...] ② 접근성이 낮은 위치 ③ 지역 당원들의 낮은 참석률 ④ 이용 장소의 관리 및 사후 처리 미흡 ⑤ 해당 지역 장소 대여를 소속 단체 당원에 의존</p>
<p>비 고</p>	

<p>행 사 명</p>	<p>○○은 녹색 : 도구적이성과 육식문명</p>
<p>일시 및 장소</p>	<p>20130201 / 의정부여성회</p>
<p>평 가 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사의 충분한 강의준비와 강의능력 ② 녹색당에 적합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강의 ③ 지역당원들의 높은 참석률 ④ 만족할만한 수준의 질의응답 ⑤ 장소의 편의성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반적으로 낮은 참석률 ② 장소의 접근성이 낮음 ③ 주최측의 지각 및 불참 ④ 해당지역과 사후 연계 부재
<p>비 고</p>	

<p>행 사 명</p>	<p>○○은 녹색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p>
<p>일시 및 장소</p>	<p>20130215 / 화정역 인근 엔젤리너스</p>
<p>평 가 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사의 충분한 강의준비와 강의능력 ② 강사의 실경험담 및 강사진의 충분한 준비 ③ 청년녹색당에서 처음 다룬 주제 ④ 군필 및 미필, 병역거부결심 당원들의 참석으로 실제 당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음 ⑤ 강의를 진행한 단체와의 우호도 증진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의 장소 선택의 문제 (변경) ② 주최측의 지각 ③ 강의 장소 대여에 관한 지역당원의 피해 ④ 전반적인 준비 미흡 ⑤ 변경한 강의 장소의 문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p>비 고</p>	

행 사 명	미혼,비혼,동거, 결혼 1
일시 및 장소	20130330 / 스페이스노아
평 가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우 높은 참여율 ② 매우 높은 비당원들의 참여율 ③ 당원들의 자발적인 토론활동 ④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흥미 ⑤ 사후 및 연계 프로그램 기획의 원동력 ⑥ 속기록을 바탕으로 한 기록자료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소의 협소함 ② 사후 모임(뒷풀이)로의 연계 미흡
비 고	

<p>행 사 명</p>	<p>녹색당 청년 정치 워크숍, "어서와, 청년 정치는 처음이지?"</p>
<p>일시 및 장소</p>	<p>20130406 / 과천시의회</p>
<p>평 가 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러 지역의 당원들이 참석 ② 높은 참석율 ③ 충분한 준비기간 ④ 적절한 패널섭외 ⑤ 영상촬영이 이루어짐 ⑥ 속기록 및 기록자료 有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상보다 낮은 수입 ② 높은 참석율에도 불구하고 참석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③ 참가자들의 활동이 구체적이지 않음 ④ 행사 사후 연계 프로그램이 요구되었으나, 여러 요인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⑤ 홍보에 비해 낮은 참석률
<p>비 고</p>	

<p>행 사 명</p>	<p>[대학 모임] 2013년도 녹색당 서울대모임 첫회 '다큐본다'</p>
<p>일시 및 장소</p>	<p>20130409 / '고양이 별, 고양이 전쟁'</p>
<p>평 가 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3년도 첫 대학모임 ② 당원 발굴의 장 ③ 자발적 대학모임의 첫걸음 ④ ⑤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후 활동 미비 ② ③
<p>비 고</p>	

<p>행 사 명</p>	<p>시설 밖으로, 자유로운 삶</p>
<p>일시 및 장소</p>	<p>20130426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p>
<p>평 가 긍정적</p>	<p>① 정책위원장, 사무처 활동가 등의 참석 ②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당원)의 정책위원으로 섭외 ③ 다루지 않은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 ④ 강연의 질이 좋았음 ⑤ 장애인 당사자 당원의 참여 ⑥</p>
<p>부정적</p>	<p>① 청년녹색당 활동 당원이 없었음 ② ③ ④ ⑤ ⑥</p>
<p>비 고</p>	

<p>행 사 명</p>	<p>제123회 메이데이</p>
<p>일시 및 장소</p>	<p>20130501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제정촉구 기자회견 및 알바데이</p>
<p>평 가 긍정적</p>	<p>① 기자회견 참석 ② 일부 유관단체와의 우호도 증진 ③ 일부 녹색당 인지도 증대 ④ ⑤</p>
<p>부정적</p>	<p>① 낮은 참석률 ② 참석이 분산 [2013년 메이데이 행사의 전반적인 상황 역시 문제] ③ ④</p>
<p>비 고</p>	

<p>행 사 명</p>	<p>미혼,비혼,동거, 결혼2</p>
<p>일시 및 장소</p>	<p>20130518 / 스페이스노아</p>
<p>평 가 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타 정당 참가자의 참석 ② 참가자들의 활발하고 자발적인 행사 진행 ③ 자료기록(녹취) ④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흥미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낮은 참석률 ② 속기 부재 ③ 사후 모임(뒷풀이) 연계의 개선 ④ 다과준비부족
<p>비 고</p>	<p>주제에 따른 참석률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기획의 실마리를 제공</p>

행 사 명	퀴어문화축제
일시 및 장소	20130601~20130615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
평 가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보신당, 진보정의당과 연계 ②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낮은 참석률 ② 청년 녹색당 자체 행사가 아님
비 고	

<p>행 사 명</p>	<p>최저임금위원회 인상 심의 촉구 기자회견</p>
<p>일시 및 장소</p>	<p>20130704 / 국회정론관</p>
<p>평 가 긍정적</p>	<p>① 기자회견과 성명서 사이의 연계 ②</p>
<p>부정적</p>	<p>① 기자회견문 내용의 비전문성 ② ③</p>
<p>비 고</p>	<p>계륵 같은 행사</p>

<p>행 사 명</p>	<p>탈핵희망 문화제, "우리가 밀양이다"</p>
<p>일시 및 장소</p>	<p>20130707 / 서울광장</p>
<p>평 가 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많은 청년당원들의 참석 ② 신규 당원(2人)의 참여 ③ 녹색당에 대한 신규당원의 긍정적 인식 확산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록당이 준비하거나 한 것이 없음 ② 홍보미흡 ③ 행사에서의 청록당원들의 역할 부재
<p>비 고</p>	

<p>행 사 명</p>	<p>청년 녹색당 워크숍 (MT)</p>
<p>일시 및 장소</p>	<p>20130720 ~ 20130721 / 일명유원지 하얀집펜션</p>
<p>평 가 긍정적</p>	<p>① 사적인 자리에서 속내를 털어놓고, 당원 간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p> <p>② 베지테리언의 식단 고려</p> <p>③ 참가자들의 내부 단결</p>
<p>부정적</p>	<p>① 적자 예산</p> <p>② 낮은 참여율과 신청취소자</p> <p>③ 기획 프로그램 이행 미비</p> <p>④ 밀실회의라는 비판</p> <p>⑤ 하반기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 불이행</p> <p>⑥ MT 이상도 이하도 아닌 성과</p>
<p>비 고</p>	

<회의 평가>

<p>행 사 명</p>	<p>반죽하다</p>
<p>일시 및 장소</p>	<p>제8회 : 20130202 / 경기녹색당사(안양군포환경련) 제9회 : 20130301 / 행당동 하늘나무 사랑방</p>
<p>평 가 긍정적</p>	<p>① 회의의 분위기와 장소 전환 ② 안건의 체질 변화 ③</p>
<p>부정적</p>	<p>① 점점 낮아지는 회의참여율 ② 안건의 연속성 저하 ③ 비효율성 ④ 이전 회차 회의에 대한 평가 부재</p>
<p>비 고</p>	

<p>행 사 명</p>	<p>임시운영위원회</p>
<p>일시 및 장소</p>	<p>제1회 : 20130414 / 영등포 녹색당사 제2회 : 20130630 / 영등포 녹색당사</p>
<p>평 가 긍정적</p>	<p>① 전국운영위원회 조직의 초석을 위한 시도 ② 기민한 임시운영위원회 조직</p>
<p>부정적</p>	<p>① 임시운영위원의 낮은 참여율과 관심 ② 임시운영위원의 대표성 문제 ③ 성비 불균형 (여성당원 참여율 저조) ④ 임시운영위원회 제도의 비효율성 ⑤ 대표성의 문제 (수도권 집중 및 선정 방식)</p>
<p>비 고</p>	<p>정기회의의 비효율성 증대와 청년녹색당의 지역단위의 운영위원회 조직을 위해 임시운영위원회 조직</p>

<양식>

행 사 명	
일시 및 장소	
평 가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부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비 고	

논평 및 성명서

일시	20130102	구분	논평
제 목	마포구청은 반인권 구청? - 현수막 철거 사과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		
내 용	<p> 지난 24일 마포구청은 제 18대 대선 출마자였던 김소연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대선후보의 낙선사례는 공직선거법(제118조 5항)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현수막만 철거해도 위법행위이지만 마포구청은 홍대, 신촌 등지에 걸쳐 총 9개의 현수막을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철거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현수막 문구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p> <p> 마포구청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에서 게시하려는 현수막을 마포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거부한 일이 그 발단이였다. 당시 도시경관과는 마레연의 현수막 문구인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 소수자입니다"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퀴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있던 올해 5월, "서울시민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걸릴 때, 이를 문제 삼아 불법이라 규정한 관공서는 그 어느 곳도 없었다. </p> <p> 올해 12월, 국립국어원은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사랑의 정의를 </p>		

동성애적 의미까지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수정했다. 국립국어원의 결정에 비교한다면 마포구청의 행정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마포구청의 해명은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호모포비아적 차별발언이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는 동성애를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암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발언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면서 청소년은 보호받고 선도되어야 할 객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동성애는 범죄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성적 취향이다. 성적취향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다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수막 강제철거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처사인 동시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결정이고, 더 나아가 이성애중심적 잣대로 모든 것을 획일하게 재단하려는 반인권적 처사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현수막의 문구는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인정 이전에 이성애중심적 가치관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적어도 이성애와는 다른 성적지향이 존재함을 알아달라는 슬픈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청은 현수막 철거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소수자를 거부한 것이며 성소수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되어선 안 되는 소중한 것이다. 생명체를 존재를 사회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수막 강제철거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반이성적 위법행위에 대해 마포구청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	---

일시	20130215	구분	논평
제 목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유죄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내 용	<p>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웹상에 공지했다는 혐의였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표현의 자유가 정의와 상식선에서 판결되길 바랐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판결이었다.</p> <p>이에 녹색당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진실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법 제도를 국민들과 함께 개혁시켜 나갈 것이다.</p>		

일시	20130228	구분	논평
제 목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내 용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자 5월 결혼을 앞둔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스스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업무조건이 그녀를 죽음이라는 극단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인구 5만 명을 담당하는 성남시 분당구 주민센터에는 고인 외에는 수습직, 일용직 노동자가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지적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정부의 상시적인 업무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들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행정부 내 업무분담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복지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감당해야 할 인구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직공무원의 조건이 이러한데, 비정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조건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 행복의 보루라는 것을 강렬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시대에서는 복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예산의 문제로 복지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세심한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올 들어 경기도에서만 벌써 두 번째인 이번 죽음은 복지직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복지 서비스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시급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처우

	<p>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 복지사업으로 삼는 많은 국민들이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p> <p>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p>
--	--

일시	20130305	구분	논평
제 목	<p>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p> <p>- 마포 카페 12PM 철거 위기를 맞으며 -</p>		
내 용	<p>건물이 오래되었거나 시설이 낙후한 경우 혹은 보다 많은 세입을 원하는 경우 보통 건물주는 재건축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많은 재개발 및 재건축 반대 투쟁을 경험했다. 하지만 용산에서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참사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바뀐 것이 없다.</p> <p>최근 마포구 서교동에 '제2의 두리반'이라 불릴 만큼 사회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페 '12PM'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카페 12PM이 임대료 체납을 근거로 재건축을 위한 명도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료는 3개월밖에 연체되지 않았고, 연체된 금액은 보증금을 상회하지 않았다. 심지어 카페 12PM은 입주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건물주로부터 재건축</p>		

통보를 받았다. 법에서는 최대 2년까지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60일치의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주가 임차인의 점포를 철거할 수 있다. 물론 법대로라면 임차인은 할 말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재건축허가를 냈다. 그리고 카페 12PM의 업주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고지도 없었다. 현행법으로는 월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잔액에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재건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양도 역시 금지되어 있다.

별일 없는 상황이라면 점포정리를 통해 타인에게 점포를 양도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 따르면 12PM의 점포주는 보증금은커녕 초기인테리어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이들이 입게 될 손실은 약 1억3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카페 12PM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태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발생할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모든 갈등과 재건축 및 재개발 갈등의 근원인 것이다.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보다 위에 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고, '정의'라는 이상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p>녹색당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길 촉구한다. 또한 재건축 신청 시 해당 부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명도분쟁과 세입자의 이주 문제를 반드시 파악하여 검토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요구한다.</p> <p>녹색당은 앞으로도 마땅한 권리조치 받지 못하는 세입자 문제에 귀 기울이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개정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p>
--	--

일시	20130704	구분	성명서
제 목	<p>최저임금위원회 인상 심의 촉구 성명서</p> <p>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1% 인상안 철회하라!</p>		
내 용	<p>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겨버렸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취업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절박합니다.</p> <p>흑자는 우리에게 조건이 나쁘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왜 좋은 일자리만 찾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흐려놓을 뿐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p>		

동안 일을 해서 밥 한 끼를 사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며, 우리는 최저임금과 맞닿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이에 청년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물가에 맞춰 인상하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입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1%의 임금인상은 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30%대의 최저임금을 적어도 60%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라!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현실에 있어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17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사용자 그리고 임무를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경총은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다시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현재 노동자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현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